

응급실 간호사의 외상사건 경험, 공감피로, 자아존중감, 공감만족 및 소진

전연진¹ · 성미혜²

부산성모병원¹, 인제대학교 간호학과 · 건강과학연구소²

Effects of Traumatic Events, Compassion Fatigue, Self-esteem, and Compassion Satisfaction on Burnout of Nurses in Emergency Department (ED)

Jun, Yeon-Jin¹ · Sung, Mi Hae²

¹Busan St. Marys Hospital, Busan

²Institute for Health Science, Department of Nursing, Inje University, Busa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factors that determines burnout of nurses in emergency department. **Methods:** The survey was given to 170 ED nurses which are located in Busan from July 1st to August 31st of 2012. The results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using SAS 9.2 program. **Result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burnout depending on gender, position, workplace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ompassion fatigue and burnout was found. Also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self-esteem, compassion satisfaction and burnout. Factors influencing burnout were self-esteem, compassion satisfaction and compassion fatigue with R² value 58.0%. **Conclusion:** Considering these results, it seems that great efforts will be needed for reducing burnout by mitigating the emergency nurses' compassion fatigue and introducing programs to increase the self-esteem and compassion satisfaction.

Key Words: Compassion, Fatigue, Self-concept, Satisfaction, Burnout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응급실 간호사는 타부서와 달리 고도의 간호기술이 요구되며, 항상 긴장된 상황 속에서의 근무 및 위험한 환경적 요인들에 쉽게 노출되어 있어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과 고통이 수반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소진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Kim, 2012). 소진이 해결되지 못하면, 실패감, 죄책감, 후회감 등 정신적, 심리적 손실과 직무만족 및 업무 수행정도를 저하시켜 또 다시 업무 스트레스를 높이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되며, 자신의 정신 및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사회조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Youn, 2009).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교통사고, 낙상, 폭력, 학대, 성폭력 등으로 심각한 외상을 입은 환자들이나 목매, 의사, 투

주요어: 공감, 피로, 자아존중감, 만족, 소진

Corresponding author: Sung, Mi Hae

Department of Nursing, Inje University, 23 Bokji-ro, Busanjin-gu, Busan 614-735, Korea.
Tel: +82-10-7223-3844, Fax: +82-51-896-9840, E-mail: nursmh@inje.ac.kr

- 본 논문은 제1저자 전연진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 This article is based on a part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Inje University.

Received: Feb 10, 2014 / Revised: Apr 1, 2014 / Accepted: Apr 2, 2014

신, 음독, 분신, 동맥 절단 등의 자살 및 타살을 비롯한 여러 상황으로 인한 사망 환자 등 끔찍한 사건 사고 환자들을 간호하게 되며, 이러한 외상사건 사고에 노출된 환자들을 처치해야 하는 급박하고 긴장된 간호 현장에서의 업무 수행은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Cohen & Mulvaney, 2005). 외상사건은 실제적이고 위협적인 죽음 혹은 심각한 상해, 또는 개인의 신체적 안녕을 위협하는 사건을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일어나는 것을 목격한 경우, 그리고 그로 인해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 등의 감정을 경험한 경우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2000). 응급실 간호사는 응급실의 특수성 때문에 다양한 외상 환자들을 접하게 되고 그에 따른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선행 연구들(Jeon, 2013; Han & Lee, 2013)을 통해 볼 때 이러한 외상사건 경험은 응급실 간호사들에게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험임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타인을 원조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심리상담자, 간호사, 소방관 등이 충격적인 사건에 직, 간접적으로 노출되면서 겪는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으며(Kong, 2005), 피해자를 1차적으로 접촉하는 대상자들로서 그들이 호소하는 고통에 대해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외상 보다 강한 강도와 오랜 지속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Choi & Song, 2009). 외상성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원이 일차적인가, 이차적인가에 따라 반응패턴이 달라지는데,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secondary traumatic stress)는 의미 있는 다른 사람에 의해 경험된 외상성 사건에 대해 앞으로써 생기는 자연적인 결과적 행위와 정서로 외상을 입거나 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원하거나 도움으로써 생기는 스트레스를 말한다(Figley, 1995). 이러한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는 공감피로(compassion fatigue)로 정의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처치가 없으면 소진의 원인이 되므로 공감피로에 대한 인식은 중요하다(James & Gilliland, 2001).

여러 연구(Han, 2005; Kim, 2007)를 통해 소진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변수로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이 주장되어왔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은 다른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의 기초가 되어 전 생애 기간 동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bae & Jo, 2004), 근무자들이 감정도동에 따른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자아존중감의 높고 낮음을 인식하면, 소진을 해소·예방하는 효과적인 대처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Brouwers, Evers, & Tomic, 2001).

공감만족은 공감피로와는 반대로 간병인이나 교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등이 외상을 입었거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돕

는 일을 하면서 얻는 긍정적인 면이다. 공감만족은 남을 돕는 즐거움이며, 동료에 대한 호의와 자신이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기인하는 즐거운 감정이다(Figley & Stamm, 1996). 공감피로의 부정적인 영향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지자 공감피로의 보호요인의 하나로 공감만족(compassion satisfaction)이라는 개념이 Stamm (2002)에 의해 소개되었으며, Stamm (2002)은 공감만족이 비록 근무 상황이나 접하는 대상자의 상황이 매우 위협하거나 스트레스 수준이 높더라도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될 뿐만 아니라 공감만족이 공감피로와 소진을 낮추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공감만족은 직무 수행자 스스로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며, 직무 수행자로 하여금 자신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Collins & Long, 2003).

응급실은 업무 특성상 다양한 외상사건을 다루게 되는 현장으로 이러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소진을 더 많이 경험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소진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폭력(Yang & Jung, 2009), 사회심리적 스트레스(Jeung, 2011), 직무만족도(Sung, 2008), 대처양상(Kim, 2012)과 관련된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소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아존중감, 공감만족이나 공감피로와 같은 요인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응급실 간호사의 소진을 예방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아직 다루어지지 않은 요인들에 대한 관계와 이들 요인들이 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들의 외상사건 경험, 공감피로, 자아존중감, 공감만족 및 소진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간호사들의 삶의 질과 더 나아가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응급실 간호사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응급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을 파악한다.
- 응급실 간호사의 외상사건 경험, 공감피로, 자아존중감, 공감만족, 소진을 파악 한다.
- 응급실 간호사의 외상사건 경험, 공감피로, 자아존중감, 공감만족, 소진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응급실 간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응급실 간호사의 외상사건 경험, 공감피로, 자아존중감, 공감만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B지역의 대학병원 3개 병원, 500병상 규모의 7개 병원을 포함하여 총 10개 병원의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대상자 19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후 회수하였다. 그 중 170명을 최종 연구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수는 G*Power를 이용하여 산출한 것이며, 다중회귀분석에 유의수준 .05, 중간 크기 효과 .25, 검정력을 .90으로 예측요인 4개를 적용하였을 때 164명으로 나타났으나 대상자 탈락률을 고려하였을 때 170명은 충족되었다.

3.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2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였다. 본 연구는 B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서 IRB 승인(2012-103호)을 받고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연구자가 대상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간호부와 응급실 수간호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협조를 구한 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취지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 수거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190부의 설문지중 170부(회수율 89.4%)가 회수되어, 170부를 본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4. 연구도구

1) 외상사건의 경험

Kim (2011)이 개발한 외상사건 경험 질문지로 총 1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상사건의 종류에 따라 지난 한 달 동안의 경험빈도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거의 경험하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자주 경험 한다.’ 5점까지 측정되며 최저 13점에서 최고 65점까지 범위를 지닌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사건경험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 (2011)의 연

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2) 공감피로

Figley (1995)가 개발한 compassion satisfaction/fatigue Self test for Helpers를 Stamm (2009)이 수정·보완한 PROQOL Version 5 (2009)(Professional Quality of Life Scale; compassion satisfaction/fatigue Subscale - Version 5)를 Kim (2011)이 번안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부정적인 개념의 10문항으로 구성되며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5점으로 5점 Likert 척도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피로를 강하게 느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1$,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4$ 였다.

3) 자아존중감

Rogenberg (1962)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를 Jon (1974)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총 10개의 문항 중 긍정적인 문항 5개와 부정적인 문항 5개를 질문하여 극히 부정적인 응답에서 긍정적인 응답까지의 5점 Likert scale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부터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었고 부정적 질문에 대해서는 그 반대로 평정하여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정의하였다.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5$ 이며 Jon (1974)의 연구에서는 $\alpha = .62$,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3$ 이었다.

4) 공감만족

Figley (1995)가 개발한 compassion satisfaction/fatigue Self test for Helpers를 Stamm (2009)이 수정·보완한 PROQOL Version 5 (2009)(Professional Quality of Life Scale; compassion satisfaction/fatigue Subscale - Version 5)를 Kim (2011)이 번안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긍정적인 개념의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5$ 였다.

5) 소진

Figley (1995)가 개발한 compassion satisfaction/fatigue Self test for Helpers를 Stamm (2009)이 수정·보완한 PROQOL Version 5 (2009)(Professional Quality of Life

Scale; compassion satisfaction/fatigue Subscale - Version 5)를 Kim (2011)이 번안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총 10개의 문항이 5점 Likert 척도로 되어있으며, 긍정적인 문항 5개와 부정적인 문항 5개를 질문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5점으로, 긍정적 질문에 대해서는 반대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5$,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1$ 이었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 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응급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과 외상사건 경험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응급실 간호사의 공감피로, 자아존중감, 공감만족, 소진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응급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피로, 자아존중감, 공감만족, 소진은 t-test와 ANOVA분석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사후 검정은 Scheffé test로 하였다.
- 응급실 간호사의 외상사건 경험, 공감피로, 자아존중감, 공감만족, 소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 응급실 간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부산 소재 3차 의료기관 3개 병원과 2차 의료기관 7개 병원의 응급실 간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 정도의 차이검정

응급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Table1), 평균 연령은 28.1세, 결혼상태는 미혼이 78.8%(134명), 기혼이 21.2%(36명)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3년제 졸업이 64.1%(109명), 4년제 졸업이 22.9%(39명), 대학원이 12.9%(22명)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라고 대답한 사람이 59.4%(101명)로 가장 많

았다. 총 임상 경력은 평균 60.8개월, 응급실 경력은 평균 39.0개월로 나타났으며, 직위는 일반 간호사가 91.8%(156명)로 대부분이었다. 근무지 만족도는 만족이 61.2%(104명), 업무만족도는 보통이 40.0%(68명), 만족이 41.8%(71명)로 나타났고, 공감피로 관리 필요성 유무는 필요하다가 86.5%(147명), 필요하지 않다가 13.5%(23명)이었다.

응급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 정도의 차이는 성별($t=2.81, p=.006$), 직위($t=2.33, p=.021$), 근무지 만족도($t=2.50, p=.013$), 업무 만족도($t=8.12,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성별에서는 남성이 평균 24.8 ± 4.3 , 여성이 평균 28.0 ± 4.0 으로 여성의 소진점수가 높았으며,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평균 28.0 ± 4.0 이었으며 주임간호사가 평균 25.4 ± 4.9 였다. 근무지 만족도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군이 평균 27.1 ± 4.0 ,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군이 평균 28.7 ± 4.1 이었으며, 업무만족도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군이 평균 26.3 ± 4.1 , 보통이라고 응답한 군이 평균 28.6 ± 3.9 ,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군이 평균 29.2 ± 3.6 이었다. 한편, 업무만족도에 대해 이를 Scheffé test로 사후 검정 한 결과, 업무만족도 보통과 불만족군이 만족군보다 소진이 높게 나타났다(Table1).

2. 외상사건 경험, 공감피로, 자아존중감, 공감만족 및 소진

응급실 간호사의 외상사건 경험의 평균점수는 31.9 ± 9.76 , 공감피로는 평균 32.1 ± 4.91 , 자아존중감은 평균 28.5 ± 2.97 , 공감만족은 평균 28.2 ± 4.79 , 소진은 평균 30.7 ± 2.80 로 나타났다(Table 2).

3. 외상사건 경험, 공감피로, 자아존중감, 공감만족 및 소진의 상관관계

응급실 간호사의 공감피로와 소진은 양의 상관관계($r=.38, p<.001$)를, 자아존중감과 공감만족은 양의 상관관계($r=.52, p<.001$)를 나타냈다. 반면, 자아존중감과 소진은 음의 상관관계($r=-.60, p=.005$)를, 공감만족과 소진은 음의 상관관계($r=-.57, p<.001$)를 나타냈다. 즉 공감피로가 높을수록 소진은 증가하고, 자아존중감과 공감만족이 높을수록 소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감만족과 공감피로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못했으며 관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1. Burnou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7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SD	M±SD	t or F	p	Scheffé
Gender	Male	14 (8.2)	24.8±4.3	2.81	.006	
	Female	156 (91.8)	28.0±4.0			
Age (year)	≤ 25	60 (35.3)	28.5±4.2	2.52	.060	
	26~30	75 (44.1)	27.9±3.6			
	31~35	22 (12.9)	26.4±4.5			
	≥ 36	13 (7.7)	25.9±5.0			
		28.1±5.40				
Marital status	Single	134 (78.8)	27.8±3.9	0.22	.839	
	Married	36 (21.2)	27.6±4.9			
Education	Junior college	109 (64.1)	27.9±3.9	2.53	.083	
	University	39 (22.9)	28.3±3.5			
	Master grade	22 (12.9)	26.0±5.5			
Religion	Christianity	19 (11.2)	27.1±3.6	1.60	.173	
	Catholic	18 (10.6)	28.4±5.0			
	Buddhist	32 (18.8)	28.5±2.8			
	None	101 (59.4)	27.5±4.3			
Clinical careers (year)	< 1	15 (8.8)	26.5±4.3	1.60	.173	
	1~3	59 (34.7)	28.3±4.1			
	4~6	31 (18.2)	28.6±3.2			
	7~9	49 (28.8)	27.5±4.3			
	≥ 10	16 (9.4)	26.1±4.7			
		5.7±4.85				
Clinical careers in emergency department (month)	≤ 12	31 (18.2)	27.3±3.9	0.46	.764	
	13~24	45 (26.5)	27.9±4.2			
	25~36	32 (18.8)	28.2±4.3			
	37~60	26 (15.3)	28.2±3.9			
	≥ 61	36 (21.2)	27.2±4.1			
	3.9±2.96					
Position	Staff nurse	156 (91.8)	28.0±4.0	2.33	.021	
	Charge nurse	14 (8.2)	25.4±4.9			
Workplace satisfaction	Satisfaction	104 (61.2)	27.1±4.0	2.50	.013	
	Dissatisfaction	66 (38.8)	28.7±4.1			
Job satisfaction	Satisfaction ^a	71 (41.8)	26.3±4.1	8.12	< .001	a < b=c
	Average ^b	68 (40.0)	28.6±3.9			
	Dissatisfaction ^c	31 (18.2)	29.2±3.6			
Management of compassion fatigue	Necessary	147 (86.5)	28.0±4.0	1.57	.117	
	Unnecessary	23 (13.5)	26.5±4.4			

Table 2. Degree of Traumatic Events, Compassion Fatigue, Self-esteem, Compassion Satisfaction, and Burnout (N=170)

Factors	Possible range	Obtained range	M±SD	Item mean
Traumatic events (13 items)	13~65	14~54	31.9±9.76	2.4
Compassion fatigue (10 items)	10~50	19~47	32.1±4.91	3.2
Self-esteem (10 items)	10~40	20~36	28.5±2.97	2.8
Compassion satisfaction (10 items)	10~50	14~40	28.2±4.79	2.8
Burnout (10 items)	10~50	16~40	30.7±2.80	3.0

4. 소진 영향요인

응급실 간호사의 소진 영향요인은 일반적 특성중 소진에 차이를 나타낸 성별, 직위, 근무지 만족도, 업무 만족도와 외상사건 경험, 공감피로, 자아존중감, 공감만족을 독립변수로, 소진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회귀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2.09로 자기상관이 없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이 공감피로 1.05, 자아존중감 1.40, 공감만족 1.39로 기준인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75.41, p<.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 R^2)는 .58로 나타났다. 응급실 간호사의 소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공감만족($\beta=-.45$)으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공감피로($\beta=.38$)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자아존중감($\beta=-.31$)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논 의

본 연구에서 응급실 간호사의 외상사건 경험은 13~65점 범위에서 평균 31.9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 인천, 충북

지역의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 (2011)의 연구에서 평균 32.01점,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Jeon (2012)의 연구에서 평균 33.69점으로 나온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응급실 간호사가 평균수준의 외상사건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공감피로는 10~50점 범위에서 평균 32.1점이었는데, 이는 같은 도구로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공감피로를 측정한 Kim (2011)의 연구에서 28.20점으로 나온 결과보다는 높은 결과인데, Kim (2011)의 연구대상 지역은 응급의료기관 1개소 당 응급의학전문의의 수가 평균 2.5명이고, 중증외상 환자 사망률은 평균 1.62명이며, 본 연구대상의 지역은 응급의학전문의 1.1명, 사망률 2.13명(Nat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2011)인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응급의학전문의 부족으로 인한 간호 인력의 대체와 더 높은 사망률로 인한 스트레스가 응급실 간호사의 공감피로를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응급실 간호사의 공감피로는 평균 이상으로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공감피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10~40점 범위에서 평균 28.5점이었다. 이는 같은 도구로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Hwang (2008)의 연구에서 평균 30.90점보다 낮은 결과이다. 이러한

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170)

Variables	Traumatic events	Compassion fatigue r (p)	Self-esteem r (p)	Compassion satisfaction r (p)
	r (p)	r (p)	r (p)	r (p)
Compassion fatigue	.06 (.412)			
Self-esteem	.01 (.942)	-.14 (.072)		
Compassion satisfaction	-.12 (.115)	.07 (.340)	.52 (< .001)	
Burnout	.20 (.119)	.38 (< .001)	-.60 (.005)	-.57 (< .001)

Table 4. Factors affecting Burnout

(N=170)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43.197	2.527		17.09	< .001
Self-esteem	-0.438	0.084	-.31	-5.19	< .001
Compassion satisfaction	-0.377	0.050	-.45	-7.57	< .001
Compassion fatigue	0.324	0.045	.38	7.28	< .001

Adj. $R^2=.58, F=75.41, p<.001$

결과는 응급실 간호사는 타 부서의 간호사에 비해 급박하고 긴장된 간호 현장에서의 업무 수행으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이로 인해 소진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마련 및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공감만족은 10~50점 범위에서 평균 28.2점이었다. 이는 같은 도구로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공감만족을 측정된 Kim (2011)의 연구에서 32.12점으로 나온 점수와 일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 (2012)의 연구에서 32.80점으로 나온 점수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Kim (2011)과 Lee (2012)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공감피로는 본 연구결과보다 낮게 나타난 반면 공감만족은 높게 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며, 본 연구대상자의 높은 공감피로가 이들의 공감만족을 낮추게 한 것으로 사료된다. Stamm (2002)이 의료행위자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만족감을 얻는다고 주장한 것과 같이, 응급실 간호사의 공감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공감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아내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이들의 공감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마련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소진은 10~50점 범위에서 평균 30.7점이었는데, 이는 같은 도구로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소진을 측정된 Jeon (2012)의 연구에서 31.68점으로 나온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타 부서와 달리 응급실의 특수성과 상황적, 대인관계적인 요인으로 응급실 간호사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그에 따라 소진 또한 높아짐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응급실 간호사들의 소진을 낮추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응급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은 성별, 직위, 근무지 만족도, 업무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Sung (2008)의 연구에서 성별, 총 임상경력, 응급실 경력에서 차이를 보인 결과와 Yang과 Jung (2009)의 연구에서 학력, 응급실 경력, 향후 응급실 근무계획 등에서 차이를 보인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Choi (2010)는 남성보다 여성이 감정적으로 예민하여 감정에 쉽게 동요 되므로 소진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업무 만족도에 따라 소진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대상자가 업무에 만족할수록 근무환경과 조건에 잘 적응하고 그 결과 소진 정도가 덜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소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에서 연구결과가 일치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위해 향후 일반적 특성 중 다루어지지 않은 변수들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응급실 간호사의 외상사건 경험과 공감피로, 자아존중감, 공감만족, 소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응급실 간호사의 외상사건 경험은 공감피로와 유의한 관계가 없었는데, 이는 외상사건 경험이 공감피로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선행연구(Jeon, 2012; Kim, 2011)와는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Lee와 Yu (2010)는 그의 연구에서 공감피로의 정도는 외상경험 환자와의 직접적인 노출뿐만 아니라 업무과다, 역할갈등 등으로 취약한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선행연구와 비슷한 수준의 외상사건을 경험하였지만 공감피로 정도는 더 높았음을 볼 때, 대상자들의 높은 공감피로 수준은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 대상자 자신이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은 결과라 보이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위해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피로와 소진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공감만족과 소진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Kim (2011)과 Lee (2012)의 연구에서 공감피로가 높을수록 소진이 올라가고 공감만족이 낮을수록 소진이 올라간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공감피로와 공감만족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 (2011)과 Lee (2012)의 연구와는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들의 공감피로는 공감만족외의 다른 변수의 영향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 생각되며, 공감피로와 공감만족의 관계규명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아존중감과 공감만족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공감만족이 직무 수행자 스스로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며, 직무 수행자로 하여금 자신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고 한 Collins와 Long (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반면에 자아존중감과 소진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소진이 올라간다는 Kyung (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응급실 간호사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대상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공감만족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공감피로, 자아존중감이었으며, 전체 설명력은 58.0%였다. Lee와 Hong (2012)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성취감이 높고 생활만족도가 높으며, 남을 도우며 즐거움을 느끼는 공감만족 또한 높아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응급실 간호사들의 자아존중감과 공감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공감피로를 낮추는 방법을 모색하여 소진을 완화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응급실 간호사들이 주위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하여, 자기 개인의 이익을 떠나 타인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간호의 질을 높이고 환자 간호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응급실 간호사의 외상사건 경험, 공감피로, 자아존중감, 공감만족, 소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소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소진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응급실 간호사의 외상사건 경험, 공감피로, 자아존중감, 공감만족, 소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응급실 간호사의 소진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은 응급실 간호사 170명으로 자료수집 2012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 실시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AS 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적 통계,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응급실 간호사의 소진은 성별, 직위, 근무지 만족도, 업무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응급실 간호사의 공감피로는 소진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소진은 자아존중감과 공감만족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응급실 간호사의 소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감만족이었으며, 공감피로와 자아존중감을 포함하여 전체 설명력은 58.0%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응급실 간호사의 소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들의 자아존중감과 공감만족을 높이면서 공감피로를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도입 및 적용 등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본다. 한편, 연구대상이 지역적, 기관별 제한된 일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정되어 향후, 지역과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이루어지는 후속,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rev. ed). Washington, DC: Authors.
- Bae, K. S., & Jo, H. S. (2004). A study on the relations among child disposition, parents' disposition requirements, and self-esteem of child.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9(13), 137-152.
- Brouwers, A., Evers, W. J. G., & Tomic, W. (2001). Self-efficacy in eliciting social support and burnout among secondary-school teacher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1(7), 1474-1491.
- Choi, H. K. (2010). *Effects of traumatic events 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burnout, physical symptoms, and social and occupational functions in Korean fire fight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jou University, Suwon.
- Choi, M. O., & Song, W. Y. (2009). The effects of the exposure on traumatic events, occupational qualities, and psychosocial resources on the compassion fatigue and burnout,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8, 262.
- Cohen, S., & Mulvaney, K. (2005). Field observations: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response for hurricane charley, punta gorda, florida, August 2004. *Disaster Manag Response*, 3(1), 22-27.
- Collins, S., & Long, A. (2003). Working with psychological effects of trauma: Consequences for mental health-care workers-a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0, 417-424.
- Figley, C. R. (1995). *Compassion fatigue*, New York: Bruner/Mazel.
- Figley, C. R., & Stamm, B. H. (1996). *Psychometric review of compassion fatigue self test*. In B. H. Stamm (Ed.), *Measurement of stress, trauma, and adaptation* (pp. 127-130). Lutherville, MD: Sidran Press.
- Han, J. W., & Lee, B. S. (2013). The relationship of post-traumatic stress,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in emergency depart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9(3), 340-350.
- Han, K. H. (2005). The moderated effects of self-efficacy and group-efficacy on the hotel employee's burnout process. *Research on Hospitality Administration*, 14(2), 63-87.
- Hwang, S. S. (2008). *A study on correlation between clinical nurses' experience of violence and their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Busan.
- James, R. K., & Gilliland, B. E. (2001). *Crisis intervention strategies*. Stamford, CT: Brooks/Cole.
- Jeon, S. Y. (2012). *Factors influencing compassion fatigue in emergency department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 Jeung, E. H. (2011). *Psychosocial stress and burnout related to violence in emergency room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Jon, B. J.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Yonsei at Seoul.
- Kim, H. J. (2011). *Relationships among traumatic events, compassion fatigue, burnout and compassion satisfaction on emergency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

- kuk University, Seoul.
- Kim, S. R. (2007). Relations among self-efficacy, self-esteem and burnout of employee in food service industry. *Journal of Contents*, 7(12), 145-156.
- Kim, Y. O. (2012). *Comparison between ICU nurses and ER nurses in burnout, job satisfaction, and coping typ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 Kong, G. S. (2005). Factors associated with burnout of Korean child protective service worker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0(3), 83-103.
- Kyung, M. J. (2012). *Difference analysis of call center emotional labor workers psychological burnout depending on their of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Lee, B. J., & Hong, S. O. (2012). The effect of older people's leisure activities on their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Tourism Research of Northeast Asia*, 8(2), 139-156.
- Lee, J. M. (2012). *Effects of working stress, compassion fatigue and compassion satisfaction on burnout in clinical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Lee, J. Y., & Yu, K. L. (2010). Compassion fatigue: Implications for counselor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1(1), 19-36.
- Nat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2011). 2011 emergency medical statistics chronological list. Retrieved May 31, 2012, from www.nemc.or.kr/infor/board_view.jsp?boardLeftMenuFlag=
- Rosenberg, M. (1962) The association between self: Esteem and anxiety.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1, 135-152.
- Stamm, B. H. (2002). In C.R. Figley (Ed), *Measuring compassion satisfaction as well as fatigue: Developmental history of the compassion satisfaction and fatigue test* (pp. 107-119). New York: Brunner-Routledge.
- Sung, M. H. (2008). Relationship of the experience of violence to burnout and job satisfaction in emergency department nurse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14(2), 83-92.
- Yang, J. H., & Jung, H. Y. (2009). Relationship between violence response, coping, and burnout among emergency department nurses.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6(1), 103-111.
- Youn, E. J. (2009). An experiential analysis of burnout in counselor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0(4), 1855-1871.